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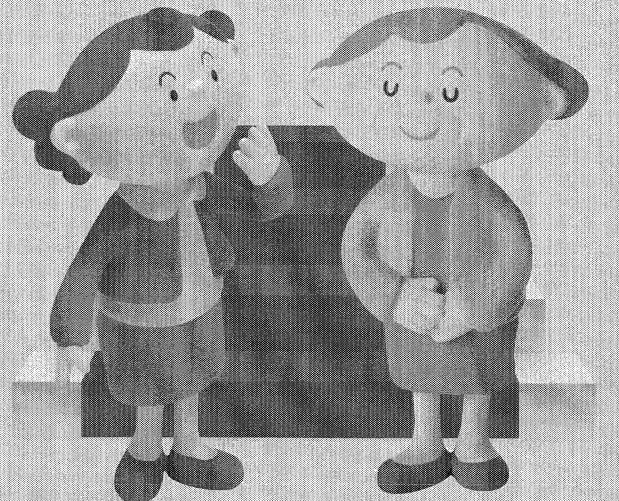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계단을 이용할 때

"바로 앞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한 걸음 앞에 두고 잠깐 멈춰선 다음, 올라가는 계단인지 내려가는 계단인지 말씀해주세요.

시각장애인 혼자서 계단을 이용할 때에는 난간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후원안내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님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2조, 법인세법 제18조 의하여 종합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문의전화: 02-950-0109)

계좌번호 우리은행 : 1006-601-227253 (예금주 :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우리은행 : 1005-201-776110 (예금주 :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 손으로 보는 세상 | 제18권 7호 통권 144호

2012년 7월 15일 발행

발행처 :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전화 : 02-950-0109 팩스 : 02-934-8069

Homepage : www.nowonblin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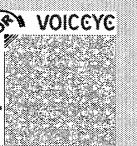
E-mail : kbuhongbo@hanmail.net

우) 139-856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157-33번지 2층

제작 : 주비컴 디자인전문회사 (T. 02-2091-1255)

〈표지 사진설명〉 – 아래쪽부터

- 네오위즈와 함께 한 '마음으로 보는 여행'
- 제2회 전국 시각장애인 복지기관 직원 연수
-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사무 인계·인수식



손으로 보는 세상 ~

2012. July | Vol.144호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2차원바코드가 실려 있습니다. (우측상단)





목소리가 담긴 핸드폰요금 고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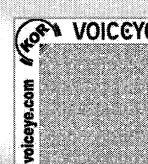
8월부터 통신요금 음성안내고지서 발급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6월부터 시·청각장애인이 통신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통신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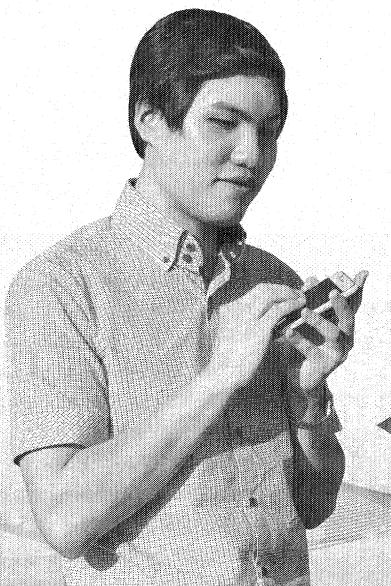
'장애인 통신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동통신 3사의 경우 금년 8월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고지서'를 발급하고, 가입관련 서류를 음성·점자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요금제를 개발하고, 장애인이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장애인 요금감면 혜택(기본료 및 음성통화료 감면비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바코드로, 해당 지역의 내용을 음성으로 압축·저장합니다.
음성장애인 '보이스아이'를 이용해 저작된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데요, 음성안내고지서에는
이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가 삽입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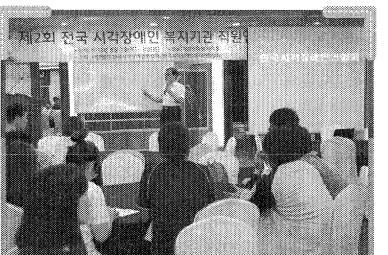
◀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앵커 이창훈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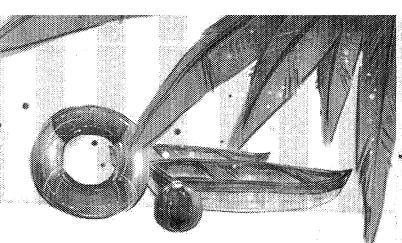
시각장애인 기관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전국 시각장애인 복지기관 직원 연수

지난 6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대전에서는 전국 시각장애인 복지기관 직원 연수가 열렸습니다.

체육대회, 업무별 분임토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전국 13개 시각장애인 복지기관 직원 2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인맥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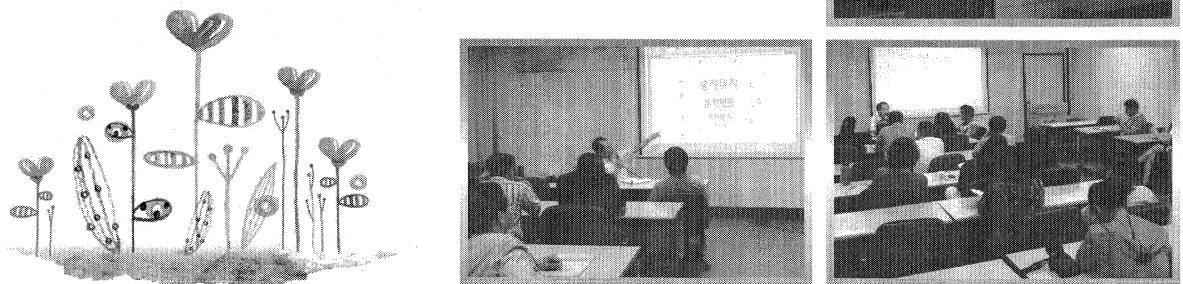




1 중도시각장애인 재활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업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 재활지원센터 담당자 연수가 지난 6월 21일부터 이틀간 개최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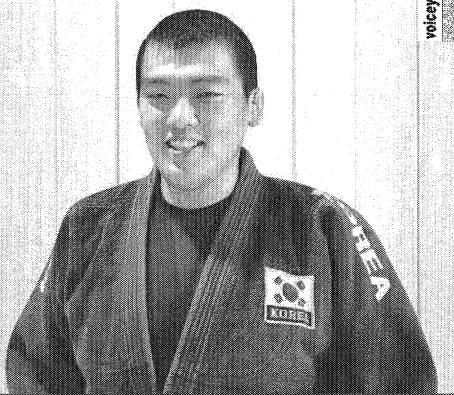
2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실무자 워크숍이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KT도고수련관에서 실시됐습니다.



3 우리 연합회는 올해 초 심사를 거쳐 서울금두리체육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5월 31일 인계·인수식을 갖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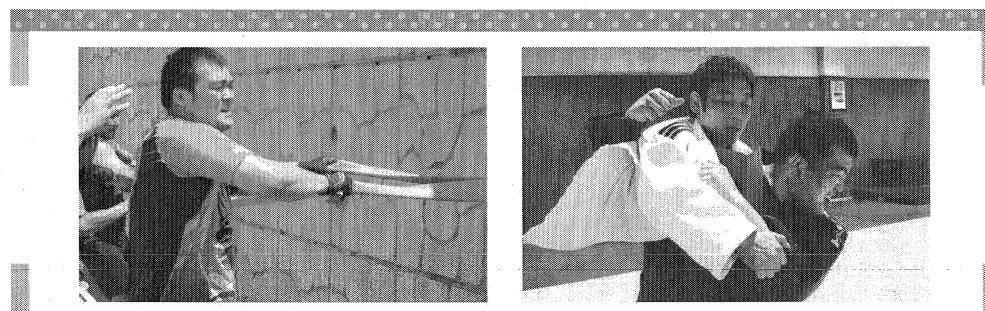
올림픽 금빛 메달이 기대되는
'시각장애인 유도 최광근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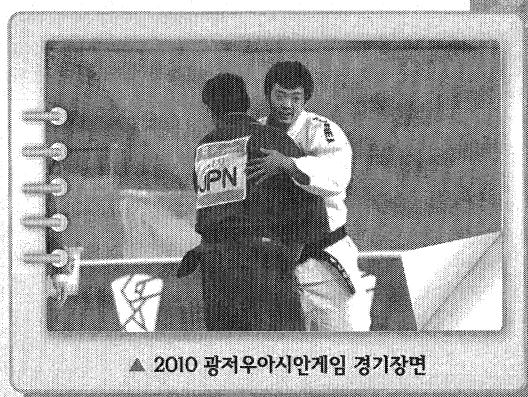
런던 장애인올림픽이 어느새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고 있는 시각장애인 유도 최광근 선수도 연습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유도를 해오던 최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국체전을 앞두고 부상을 당해 망막 박리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좌절하지 않고 시각장애인 유도에 도전해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과 2011년 세계장애인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올 여름 런던에서도 그의 금빛 메달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 이용덕 감독(왼쪽) 조현철 트레이너(오른쪽)와 함께



▲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 경기장면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남이섬을 마음으로 느끼고 왔어요” ❤️

6월 14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남이섬으로 ‘마음으로 보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각 회차 별로 10가정씩 총 20가정이 참여해 네오위즈 직원들과 함께 전기자동차투어, 남이섬 건강걷기, 가족자전거타기 등을 체험하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네오위즈 마법나무재단은 식사 및 입장료 등 체험경비 전액을 후원했습니다.

